

# 환경월드컵의 상기

‘이제는 선진국이다. 환경을 아는 국민이 된 것이다.’



권영국

〈LG 컨트리클럽〉

**나**는 국내에 있는 딸과 이웃 처제가족들과 함께 오래 만에 분당에 있는 종합운동장에 가서 응원을 하고 환호하는 시민들을 지켜보았다.

회사에서 체육대회를 할 때 응원을 해보고는 처음 있는 일이라 지켜보고 난 후 소감을 적어본다.

오래 살고 볼 일이다. 오십 평생 집 또는 회사에서만 텔레비전 화면으로만 보았지 종합운동장에서 대형화면을 통해서 전 국민과 시민과 가족과 함께 한 마음, 한 뜻으로 “오~필승 코리아!” “대~한민국! 짹짹 짹 짹” 하면서 함성과 환호 소리가 하늘을 찌를 듯이 응원을 했다.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외치면서 응원을 해 본 것은 또한 처음 있는 일이었다. 너무나도 놀란 것은 한국 국민이 이렇게까지 한마음으로 단결될 줄은 몰랐다. 이길 때와 졌을 때는 상반되지만 지더라도 용기를 잃지 않고 계속적으로 응원을 해 주었다.

환경인으로써 생각해보면 우선 그 많은 쓰레기를 모두가 솔선수범해서 주웠다는 점이 놀랍다. 정말 환경 월드컵이었던 것이다.

이제는 선진국이다. 환경을 아는 국민이다.

일본에 거주하는 가족들까지도 찬사를 보내주었다. 또 그곳의 한일 동포들의 마음속에 애국심이 불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왠지 어깨가 으쓱해지는 것은 필시 나만의 기쁨은 아닐 것이다.

필자는 내 집 앞마당 청소 쓰레기 줍는 운동부터 해보자고 앞장 나섰다. 실제 쓰레기 줍는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어찌다 “아이고! 수고 많으십니다.” 하면서 지나가는 시민도 있다.

그런 말을 들으면 고마워서 열심히 하고 싶고 그 날은 기분이 더 좋다.

그러나 또 다른 시민들은 더운 날씨에 뭐하러 쓰레기를 줍냐며 또 버릴텐데 하는 말도 한다. 이런 말은 괜히 힘빠지게 만든다.

이번 한일 월드컵을 회상 해보면 추억거리가 많다.

환경문제도 또한 세계의 16강, 8강, 4강도 갈 수 있겠구나 싶었다. 무엇보다도 환경인의 자신감을 심어주고 환경신화를 창조한 셈이다.

응원도 일등국, 환경도 일등국이 될 수 있다고 믿는다. 오염된 쓰레기를 줍는 “마인드” “스피리트”라면 어떠한 일이라도 해낼 수 있을 것 같다. 필자는 일본에 있는 가족들에게 보란 듯이 외치고 싶다. 고춧가루, 된장, 마늘 먹는 우리 한국인의 힘은 기와 스테미너가 넘치지 않냐고….

과거에는 자신감이 죽어 있었지만 현재는 일본인에게 프라이드 100% 살렸다고 생각한다.

이제는 한국인이라고 무시하거나 괘시를 받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 그리고 이번 기회가 개인적으로 우리 손자, 손녀들에게 한국인의 힘과 저력을 보여 주게 되어서 너무나도 기쁘다.

이제 환경 한일 월드컵을 환기시키면서 성공의 편지를 띄어본다.

이기자! 싸우자! 정정당당 코리아! 화이팅!!!